



우리나라 선박안전관리 아·태지역서 가장 우수 아·태항만국통제협력기구서 2년 연속 최우수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상태가 아·태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양수산부는 아·태지역항만국통제협력기구(Tokyo MOU)로부터 2003-2005년 3년간의 선박안전관리분야 평가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최우수국가로 평가됐다고 최근 밝혔다.

TOKYO MOU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태지역 18개 국가가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의 효과적인 운항통제를 위한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1994년에 발족한 국제기구로서 본부는 일본 도쿄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3년 임기의 의장국(해양수산부 박영선 해사기술담당관)을 맡고 있다.

2005년 11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15차 아·태지역항만국통제협력기구 회의 모습

평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선박 2,578척이 점검을 받아 이 중 23척만이 출항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출항정지율이 0.89%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지역내 60개국의 평균 출항정지율인 6.71%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것이다.

이번 TOKYO MOU의 아·태지역 60개 개별국가의 평가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출항정지율에 따라 불량국가(Black List) 18개국, 중간국가(Grey List) 17개국, 우수국가(White List) 25개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우수국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중국과 홍콩이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에서의

항만국통제시 선박점검 등에서 우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시설이나 설비, 인원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해양부, 해양교통관제요원 역량제고 방안 모색

해양수산부는 6월1일, 2일 양일간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해상교통관제(VTS) 업무역량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관제요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제운영방향 모색과 직원간의 자유토론으로 근무시 도출된 문제점을 발굴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어 VTS 운영에 관한 신기술·국제동향 및 선박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VTS 역할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있었다.

사례발표는 △최근 관제개선 사례와 선박통제 개선방안 △지방청 VTS 고감도 운영을 위한 추진활동 △고객만족을 실현한 관제사례와 우리의 자세 등을 발표했으며, 관제혁신을 위한 분임토의도 병행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 Vessel Traffic Service)이란, 과학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선박 항로 이탈여부·진행방향·속력·선박교차시간 등을 모니터로 파악 감시하여 선박안전항행 및 항만입출항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항만서비스 기능으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항 등 14개 항만에 8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